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32 호

2020년 8월 1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2020 UNGC ESG 실무그룹 모집 (~8/18)
2. 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7/23)
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공부문) 1차 미팅 결과 (7/31)

■ 본부 소식

1.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 연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난 20년
2. UNGC 20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 -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특집

1.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1부
2.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2부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LG 화학
2. [SDGs 솔루션] 음식물쓰레기를 열과 에너지로 전환하는 순환 프로세싱

3.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하기
 - 스캇 매더(Scott Mather) PIMCO 미국 핵심전략 최고운용책임자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WEPs 성 격차 분석 톨 안내
2. [글로벌 동향] MCKINSEY GLOBAL INSTITUTE: COVID-19와 성평등

■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반부패 투자동향 ②] 스웨덴 국가연금펀드
2. [코로나와 반부패 ③] 바젤연구소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

■ UNGC 회원 뉴스

1. 아모레퍼시픽,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2. SKT-수자원공사 "IoT 스마트 물관리로 한국판 뉴딜 협력"
3. SH공사,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SH 인권센터 개소
4. 두산, 4600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어려워도 동반성장 약속 지켰다

■ CSR 뉴스

1. '여성위기' 코로나 19... 우리 회사는 잘 대응하고 있을까
2. 기후변화 대응·저탄소사회 전환... '그린 뉴딜' 밑그림
3. 구글의 알파벳, ESG 채권 역대 최대규모 초저금리로 발행
4. 공공기관 2022년까지 일자리 2.6 만개 창출...여성임원, 고졸 확대
5. 올 상반기 '라떼파파' 역대최대...육아휴직자 4명 중 한 명은 '아빠'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ESG 실무그룹 모집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사들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이슈를 내재화하고 임팩트를 극대화해 기업지속가능성 가치를 제고할수 있도록, 기존 'SDGs 실무그룹'을 확대 개편하여 ESG 지식 공유 및 동료 학습 플랫폼으로 새롭게 런칭합니다.

포브스는 현재 전세계 ESG 투자규모가 30 조달러를 상회하고, 코로나 19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ESG 테마 ETF 가 연초 이후 S&P500 지수에 비해 두배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SDGs 채권, 그린본드(Green Bond), 소셜본드(Social Bond) 등 지속가능성 관련 채권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미 G20 국가 중, 전 세계 GDP 에 80%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들이 ESG 공시 및 활성화 법률안 및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가 총액 기준, 글로벌 250 여개의 기업 중 93%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ESG 공시 추세는 TCFD 기후관련 재무정보공개 권고안을 비롯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확산됨에 따라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SG 는 기업 가치 평가와 비즈니스 경쟁력 제고의 열쇠입니다. 본 실무그룹을 통해 ESG 라는 공통의 화두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효과적인 지속가능성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실무그룹의 각 회차 별 주제 및 프로그램은 회원사 실무진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탄력적으로 선정 및 운영됩니다.

미팅 일시 및 아젠다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시: 2020 년 8 월 27 일(목) 오후 2:30-5:30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아젠다:

- 국내외 ESG 동향 공유
- 실무자 상호 학습 및 사례 공유
- ESG 관련 UNGC 자료 제공

- 참여 회원사 간 네트워크 구축

본 이니셔티브에 회원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참여 신청](#)

*링크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름/기업명/부서명/직책/이메일/연락처/ESG 실무그룹 내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 세 가지> 를 기입해 gckorea@globalcompact.kr 로 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7/23)



* 참석자: LG전자, 두산중공업, 롯데쇼핑, 포스코인터내셔널,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임업진흥원, 서울산업진흥원,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반부패·윤리경영·컴플라이언스 담당 실무자 20명

* Co-Chair: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영 대리,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7월 23일 (목) 반부패 실무그룹의 2020년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참여하여 반부패 정책 동향을 공유했으며, 회원사 반부패·윤리경영 담당 실무진과 함께 각 기업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에서 다루고자 하는 아젠다를 논의했습니다.

박석범 UNGC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UNGC가 다루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 반부패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협회가 정부, 국회, 기업, 시민단체 등과 함께 협업하여 반부패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와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발표로 UNGC 한국협회 곽글 과장이 ‘글로벌 반부패 법 및 투자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기업의 형사책임과 감독책임이 강화되고, 각국의 반부패 법에 기소유예합의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제3자 이슈가 부패 리스크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글로벌 트렌드 하에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과 영국의 뇌물수수법(UK Bribery Act)가 더욱 강력하게 집행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FCPA의 벌금/합의금이 계속해서 최고액을 갱신하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폭넓게 적용되는 해외 반부패 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우리 기업들도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의 이행을 점검하고, 공급망 및 제3자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전세계 주요 연기금을 중심으로 ESG 고려 투자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기업의 반부패 이슈가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부패 이슈는 단순히 법과 제도를 넘어서 기업의 투자자 관리에 있어 리스크이자 인센티브로 작용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무성과에 대한 압박과 재택근무와 온라인 상거래의 활성화, 그리고 공급망 실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하며 이에 대한 기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에서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과 권익위의 반부패 확산을 위한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서 명시한 2022년까지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교육, 사회, 경제, 정치 등 전방위에 걸쳐 민간의 시각으로 부패의 해결책을 찾을 것임을 밝혔으며, 청렴사회 협약을 통한 민간부문 반부패 확산 노력에 대한 사례를 제시하고 기업들이 스스로 반부패 관련 이행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익위에서 청렴 컨설팅과 산업별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부신고자 보호와 청탁금지법 시행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정부 주도의 정책과 법의 통제장치만으로는 청렴성을 제고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권익위에서도 민간부문과 협력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임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참석 기업과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반부패 정책 및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담당 업무 추진 시 애로사항들과 향후 논의하고자 하는 아젠다에 대해 서로 공유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해외 반부패 법 대응 뿐만 아니라 고객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반부패 시스템 이행을 요구받고 있으며, 부패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사업장별 리스크 진단을 시행하고 있으나 공급망 전반의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세부적인 체크리스트와 실사를 통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향후

과제임을 밝혔습니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은 정부의 청렴도 평가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대응하며 다양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있으며, 자율개선과제 발굴 및 윤리수준 진단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이를 고도화하고 있으나, 반부패 정책 및 교육 강화로 인한 조직원의 피로도 증가와 ISO37001 인증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임직원들의 부패 인식 차이를 줄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부패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대면 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반부패 교육 및 실사 대안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석자 대다수가 공감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실무그룹에 참여함으로써 타 기업 및 기관의 우수 사례를 배우고, 새로운 반부패 콘텐츠를 발굴하고,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의 반부패 노력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영 대리를 반부패 실무그룹의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대표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 모임에서는 권익위의 산업별 반부패 가이드라인 소개와 이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며, 올 한해동안 코로나와 연계된 부패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스터디하고 대응책을 논의하여 결과물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UNGC 한국협회는 반부패 실무그룹과 BIS홈페이지(www.bis.or.kr)를 통해 다양한 반부패 관련 자료들을 공유하고, 상호 학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문의: UNGC 한국협회 곽 글 과장 (T. 02-749-2182) / 임재진 연구원 (T. 02-749-2149)

3.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공공부문) 1차 미팅 결과 (7/31)

*참석기관 (가나다 순): 국민연금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부산경제진흥원, 속초시시설관리공단, SH 서울주택도시공사, 예금보험공사, 충남연구원,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석유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총 16개 기관 18인

*2020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co-chair: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 국민연금 양광복 부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신민환 부팀장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7월 31일 (금) 공공부문 회원사 대상 2020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에서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16개 기관이 참석하여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UNGC와 SK SUNI가 협력하여 제작한 기업과 인권 교육영상 및 국내외 동향, COVID-19와 인권에 관한 발표를 통해 기업과 인권의 흐름과 그 중요성을 되짚어보았습니다. 이어서 참석기관별로 인권경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실무그룹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UNGC 한국협회 박석범 사무총장은 실무그룹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실무그룹은 참석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동료학습의 장이며, 활발한 의견과 아이디어 교환을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환영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각 소속기관, 기업과 인권 관련 자신의 경험 등을 공유하며 향후 실무그룹에 기대하는 바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각 기관별 인권경영 추진 단계와 담당자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전지식 및 경험이 상이한 상황에서 실무자 간의 네트워킹을 통한 동료학습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또한 실무자들이 인권경영에 대한 지식을 넓히고, 공동과제 발굴 및 협업을 통한 논의와 배움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개가 끝나고 실무그룹 참여자들은 UNGC-SK SUNI가 공동제작한 기업과 인권 교육영상 1편을 시청하였습니다. 영상은 UN이 2011년 발표한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의 수립 배경과 내용, 인권경영이 기업에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고, 이어진 기업과 인권 국내외 동향 발표에서는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이 △ILO 삼자선언을 비롯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현대판 노예제, 분쟁광물 등 기업 공급망내 인권 이슈 관련 각국 법제화 동향 △우리 정부의 기업과 인권 추진 현황 △코로나 시대 기업의 인권 리스크와 해결방안을 소개하였습니다.



박 연구원은 세계 각국에서 기업과 인권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UN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성명서](#)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COVID-19 임팩트 브리프](#), 국내 미디어를 인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기업과 인권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업장 보건 및 안전 보장, 공급망 내 노동자 인권 보호 등 기존 기업과 인권 주요 과제가 더욱 더 강력한 리스크로 부상했으며, 고용 위축, 초과 근무, 특정 집단에 대한 선입견 및 차별, 자가격리 중 임금 문제 및 작업장내 집단감염 등 새로운 리스크 또한 산재하고 있어 코로나 시대 인권 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였습니다. 끝으로 각 기관 및 기관 협력사에서 코로나 대응 수준 및 현황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권 실사와 코로나19: 기업을 위한 자가진단([Human Rights Due Diligence and COVID-19: Rapid Self-Assessment for Business](#))”을 소개하며 발표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각 참석기관들이 인권경영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를 확인하고, 향후 실무그룹 회의 아젠다를 발굴하기 위해 기관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각 기관 담당자들은 인권경영 관련 △효과적인 고충처리 메커니즘(구제 절차) 이행 방안 △협력업체 인권경영 지원 범위와 방안 △인권영향평가 시행계획/결과와 함께 기관별 특수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고충처리 메커니즘〉

많은 기관들이 인권 구제절차의 실질적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고민 및 고려사항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고충처리 메커니즘 이행 및 관리 △관련 부서의 권한 △처리 사안의 범위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실무그룹 참가자의 소속기관 중에는 독립적인 인권 구제절차 기구를 마련하여 신고부터 처리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도 있었으나, 복수의 부서에서 구제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고충처리 센터의 신고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임직원들의 이해와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고민도 있었습니다.



〈협력사 인권경영〉 유엔, 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공급망 전반에 대한 실사와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 내 인권 체계를 갖추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과정에서 여러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협력업체 계약 단계에서 인권보호 준수사항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경영권 개입으로 해석하는 등 뜻하지 않은 역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과 협력사의 매끄러운 인권경영 제고를 위해 한층 더 심층적인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권영향평가〉 대다수 기관들이 작년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음을 알렸습니다. 지난 해 혹은 올해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 기관들은 영향평가를 통해 협력업체 인권경영 강화, 비정규직, 장애인 등 취약그룹을 위한 인권정책 강화, 신고채널 다양화, 구제절차 강화 등의 주요 개선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인권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어려움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사내 합의에 대한 고민도 언급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각 기관별로 △포스트코로나 대응전략 △익명신고 시스템 적용 △갈등관리 매뉴얼 수립 △인권경영 시스템 인증 △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인권경영 현장 선포 △임원 인권교육 △피해직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직내 인권경영 추진단 발족 등을 통해 인권경영을 이행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미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양광복 부장과 무역보험공사의 신민환 부팀장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과 함께 2020년도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의 공동의장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UNGC 한국협회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은 9월 중순 2차 미팅을 갖고, 기업과 인권 역량 강화 및 협업과제 발굴을 통해 국내 인권경영 정착 및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나갈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UNGC 한국협회 박재영 연구원 / 여지원 연구원 (T. 02-749-2150)

본부 소식

1.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 연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난 20 년

2020 년은 17 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행동의 10 년'의 시작입니다. 책임있는 기업이 원칙 기반의 전략 및 운영을 통해 행동과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단결해야 합니다.

'행동의 10 년'과 더불어 유엔글로벌콤팩트 또한 창립 20 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 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안토니오 구테레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지난 20 년 간의 여정을 보여주며 더 나은 세상을 위해 UNGC가 기업과 함께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Olajobi Makinwa 유엔총회 선임자문](#)

우리는 세상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피는 다른 사람 안에서도 흐르고 있습니다.

[Gonzalo Munoz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기후행동 챔피언 수상자](#)

우리는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는 생태계의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우리는 필요한 만큼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개선되고 있지만, 필요한 만큼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Sturla Henriksen 유엔글로벌콤팩트 해양 특별고문](#)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매우 빠르게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아이들과 손자, 손녀를 넘어 그 후손들까지 실패의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Lise Kingo 煎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 기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결할 차례입니다.

20년 전, 유엔과 비즈니스 리더들은 비전을 가지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Kofi Annan 煎 유엔 사무총장

다보스에 모인 비즈니스 리더 여러분과 유엔이 인간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공유된 가치와 원칙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콤팩트(Global Compact)에 동참할 것을 제안합니다.

Sir Mark Moody Stuart 유엔글로벌콤팩트 재단 이사장

코피 아난이 천재적이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기업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까지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전 세계 기업을 동원하며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4대 분야의 10대 원칙에 따라 운영과 전략을 연계시키도록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Lise Kingo 煎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저에게 유엔이란 세계의 원칙과 가치, 그리고 휴머니즘에 대한 희망의 불빛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유엔의 가치와 생각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민간부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콤팩트는 유엔 현장의 원칙과 가치를 준수하는 기업이 힘을 합쳐 인류를 대표하는 플랫폼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유엔글로벌콤팩트는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10,000개 이상의 기업과 직접 소통하는 로컬 네트워크와 함께 성장했습니다.*

Carlo Pereira 유엔글로벌콤팩트 브라질협회 사무총장

현장에서 직접 뛰는 로컬 네트워크들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주요한 자산입니다.

Lise Kingo 煎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국가 수준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기업 커뮤니티에 맞게 지역화 하는 것입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리우+20 회의에서 기업 커뮤니티를 동원하여 지속가능성
아젠다를 형성하는 데 있어 더욱 의미 있는 민간 부문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Paul Polman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

사익만을 추구하는 기업은 오래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 기업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장기간 지속가능할 것입니다.

2015년 수립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파리기후협약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공통의 의제를 제시하며 기업들에게 분명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Bill Tai ARM 트레저데이터 벤처 투자가

모든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 중 어떤 목표라도 부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Ilham Kadri 솔베이 CEO

지속가능성과 SDGs를 기업 전략에 내재화하지 않는 기업은 사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Flora Mutahi 멜빈 마르슈 창립자 겸 최고경영자

소비자들은 기업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SDGs를 지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기업이 더욱 야심찬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

젊은 세대들이 진취적으로 올바른 전략, 정책, 접근법을 모색하는데 힘을 모으지 않는다면 변화무쌍한 현재의 문제들을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Greta Thunberg 환경운동가

세계는 깨어나고 있고, 좋은 삶은 변화는 찾아올 것입니다.

Wineke Haagsma PwC 책임경영수석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달성까지 10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Sharan Burrows 국제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으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미래입니다.

Gonzalo Munoz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5) 기후행동 챔피언 수상자

아주 짧은 시간에 인류의 관점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Jean Pascal Tricoire 슈나이더일렉트릭 CEO

좋은 기업을 원한다면 사람들을 동원해야 합니다. 기업은 무언가를 향해 일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Scott Mather 핼코 CIO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성 향상이 파이를 더 키우고, 더 나으며, 보다 포용적으로 만드는 것임을 깨닫고 있습니다

Feike Sebjesma 煎 DSM CEO

미래에는 모든 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길 바랍니다. 기업은 목적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Sturla Henriksen 유엔글로벌콤팩트 해양 특별고문

여러분은 지속가능한 사회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역사의 옳은 방향에 서야 합니다.

Lise Kingo 煎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총장

저는 우리가 공통된 전략과 비전을 바탕으로 기업들이 서로 연대하는 하나의 대가족, 하나의 글로벌 콤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해 전 세계에 걸쳐 연대합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역경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대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의 기업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할 때 더 강하기 때문에 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임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기업의 연대입니다.”

영상 보기

2. UNGC 20 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 - 산다 오잠보 사무총장



20년 전, 코피 아난(Kofi Annan) 전(煎) 유엔 사무총장은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인간 중심의 글로벌 시장을 구축할 것을 요청했고, 2000년 7월 26일 유엔글로벌콤팩트가 탄생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000개 이상의 기업과 3,000개 이상의 기관의 이해관계자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기업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되었습니다.

기업 운영과 전략에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내재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회원사들은 기업이 선의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지역 네트워크와 함께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지속가능성이 전세계의 주류로 자리잡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올해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실현을 위한 유엔 ‘행동의 10년’의 첫 해입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비즈니스(Business-as-usual)’에 안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더 정의롭고 공정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금 바로 야심 찬 행동에 돌입해야 합니다.

지난 20년간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기업과 연대해 온 것을 축하하며,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향한 여정의 다음 단계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기](#)

온라인 리더스 서밋 2020(Leaders Summit 2020) 특집

2020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에는 글로벌 기업 리더, 정부 관료, 국제기구 수장들이 ‘보다 포용적인 경제와 사회를 재건하기 위한 방법’을 심층적으로 논의한 세션들이 다수 진행되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기업 지속가능성에 관한 의미 있고 유익한 서밋 내용을 주제별, 세션별로 요약해 뉴스레터를 통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번 호의 주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입니다.

1.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1부

(Raise SDG Ambition to Build Back Better and Recover Stronger Part 1)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는 기업의 SDGs 이행과 관련한 다양한 세션이 열렸습니다. 첫번째 세션인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1부(Raise SDG Ambition to Build Back Better and Recover Stronger Part 1)’에서는 야심찬 SDGs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떻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파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지, 그리고 유엔글로벌콤팩트 10대 원칙을 어떤 방식으로 기업의 핵심전략 및 운영계획에 주류화 시킬 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본 세션은 리세 킹고 유엔글로벌콤팩트 전 사무총장(아래 리세),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액센츄어 CEO(아래 줄리)의 대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주요 대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리세: 몇몇 분야에서는 성취가 있었지만, 불평등, 기후 변화 이슈 등에서 SDGs 달성목표에서 뒤쳐지고 있다. 이에 UNGC, SAP Accenture 등이 함께 2020년 1월에 글로벌 이니셔티브인 SDGs Ambition을 런칭했다. 본 이니셔티브 론칭과 세계적 도전 및 COVID-19이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줄리: 팬데믹 위기가 인류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하는 기회이며, 금융 등 환경적 변화는 물론 문화적, 행동적 변화를 동반했다. 금융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오히려 비약적인 기술발전을 목격했는데,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혁신적인 기술발전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세: 올해 1월 SDGs 앰비션 이니셔티브를 런칭할 때만 해도 이러한 팬데믹 위기 상황을 상상하지 못했다. 현재 10가지의 벤치마크를 세우고 발표했는데, 기업들이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1.5씨 궤도에서 전략을 세우고, 성평등 측면에서도 여성 리더십을 향상하는 등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 CEO들이 뉴노멀(New Normal)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줄리: 목표와 실행플랜, 측정 프로그램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SAP가 짧은 기간 동안 여성임직원 비율을 44%로 향상시킨 목표와 실행플랜, 측정프로그램, 그리고 신뢰할 만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리세: 디지털화는 SMEs 및 영세기업이 긍정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효과적으로 SME의 참여를 이끄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줄리: 많은 기업이 참여할수록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보가 많을 수록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기업들이 그들이 공급망에 있는 SMEs와 영세기업이 SDGs 이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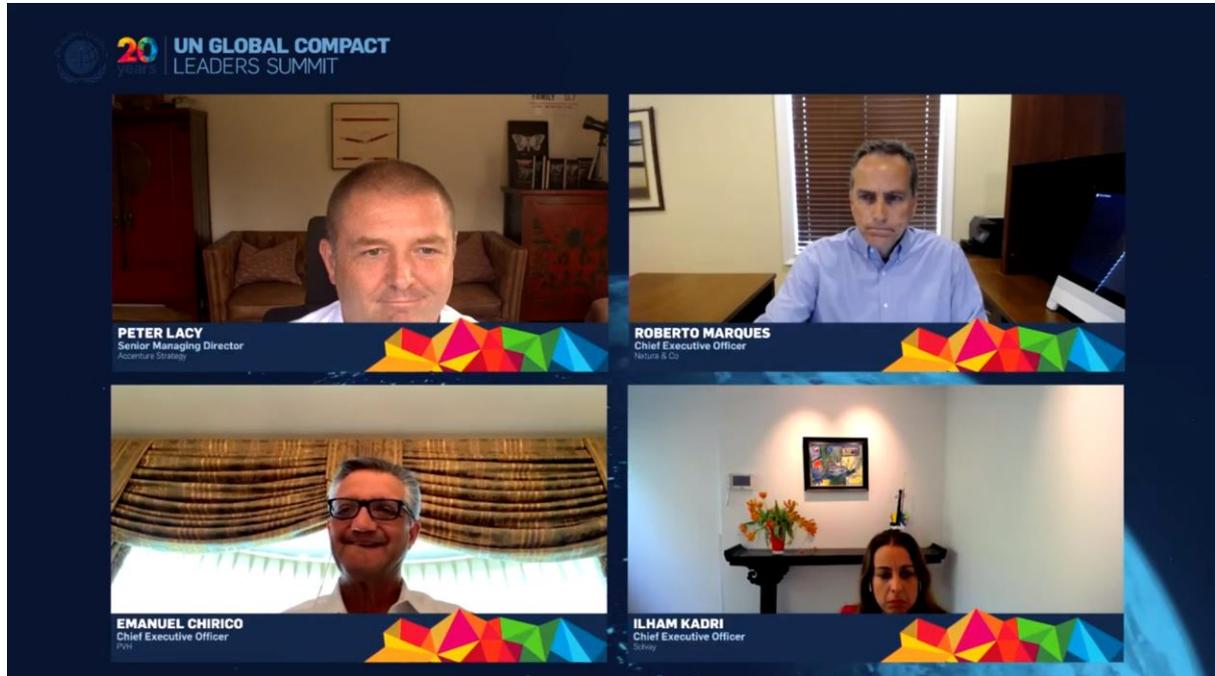
UNGC의 SDGs 앰비션 이니셔티브와 팬데믹 이후 뉴노멀에 대한 두 연사의 대담에 이어 본 세션에서는 폴 폴만(Paul Polman) 유엔글로벌콤팩트 이사회 부의장을 연사로 초청해, 기업과 SDGs에 대한 고견을 들었습니다.



폴 폴만 부의장은 “2030년까지는 4000여일 밖에 남지 않았지만 우리는 SDGs 달성을 위한 올바른 궤도에 있지 않다”며, 유엔글로벌콤팩트 ‘비즈니스 벤치마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는 건강한 지구가 없다면 건강한 인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과 자연과 경제, 인간, 그리고 기후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지를 드러냈다. 글로벌 프로세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느낀다면 문제가 드러난다.”며 “비즈니스 리더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이해하고 ESG에 우선순위에 두어야 더 많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배제가 아닌 포용이 중요하며 평등과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 폴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보는 것 그리고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지금 당장 ‘행동’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일함 카드리(Ilham Kadri) 솔베이 CEO, 매니 치리코(Manny Chirico) PVH Corp 회장 및 CEO, 로베르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 Natura & Co CEO가 참여하였으며, 피터 레이시(Peter Lacy) 액센츄어 전무이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문 별 연사들의 의견입니다.

Q1. 당신이 속해 있는 기업이나 산업이 SDGs를 접목시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코로나19가 소비자나 산업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는가?



A1. 일함 카드리, 솔베이 CEO: “과학과 기술을 접목시켜 새로운 방식으로 기업 리더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이제 기업들은 단지 이윤을 추구하는 주체가 아니라 선한 방식으로 돈을 벌며 사회에 긍정적인 임팩트를 남겨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악영향은 사회적 약자에게 불균형적으로 돌아간 것을 모두 지켜봤듯이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다양한 협력관계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Q2. 패션산업은 지속가능성을 접목시키기 어려운 산업 중에 하나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나의 기업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패션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A2. 매니 치리코, PVH Corp 회장 및 CEO: “첫번째로는 인식제고, 그리고 두번째는 투명성과 책무성이 필요하다. 의류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려는 끊임없는 싸움이 존재한다. 그러나 산업 전반의 전략을 위해서는 공급자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소비자들에게 지속가능한 품목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디지털라이제이션과 온라인 거래는 변화를 가속화한다. 누구보다 소비자들이 패션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Q3. 코로나19가 산업에 미친 영향과 소비자를 지속가능성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A3. 로베르토 마르케스 CEO: “먼저 기업 측면에서 개인의 위생이나 청결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이러한 수요에 맞춰서 기업도 제품을 바꾸고 있다. 두번째는 인간 중심의 관점에서 자각격리가 강화되면서 집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했는데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더 어려움을 겪었으며, 웰빙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삶에서의 우선순위도 많이 바뀐 듯하다.”

연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내에서 일어난 변화, 그리고 코로나19를 기회로 삼아 지속가능성을 기업 내에 주류화 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본 세션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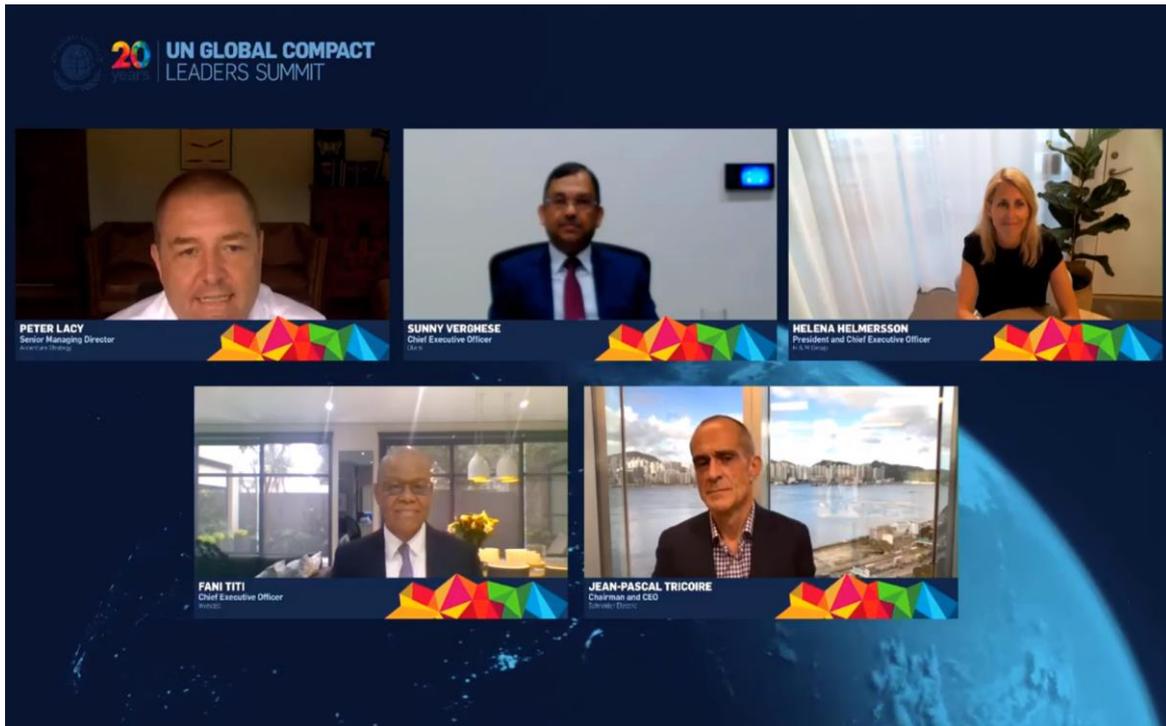
2.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2부

(Raise SDG Ambition to Build Back Better and Recover Stronger Part 2)

리더스 서밋 ‘더 나은 재건, 더 강한 회복을 위한 SDG 앰비션 2부 (Raise SDG Ambition to Build Back Better and Recover Stronger Part 2)’ 세션은 모크위치 마시시(Mokgweetsi Masisi) 보츠와나 대통령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모크위치 마시시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에 장기적인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계경제가 불안정하면 국내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탄력적이고 강하게 회복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30 목표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때문에 현재 계획을 재조정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전하며 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전략과 운영 계획에 접목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패널토론에는 서니 베르기스(Sunny Verghese), 올람인터내셔널 공동창업자 및 CEO, 헬레나 헬머슨(Helena Helmersson) H&M CEO, 파니 티티(Fani Titi) Investec CEO, 그리고 장-파스칼 트리쿠아(Jean-Pascal Tricoire),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및 CEO가 참여하고 피터 레이시(Peter Lacy) 액센츄어 전무이사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아래는 주요 질문 별 연사들의 의견입니다.

Q1. 공급망과의 상생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Q2. 기업들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 정부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정부한테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헬레나 헬메르손, H&M CEO:



A1.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순환경제와 새로운 협력 방식의 중요성을 대두시켰다. H&M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적십자사와 협력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하고 재사용 가능한 섬유 및 원단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탄력성을 보장하면서 소비자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는 유의미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H&M은 공급망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생계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A2. “정부는 포괄적인 야망과 목표를 보고 이를 이루기 위해 우리 모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표는 다자간 협력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Q3.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Q4. 기업들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장 파스칼 트리쿠아, 슈나이더 일렉트릭 회장 및 CEO:

Schneider
Electric



A3. “임금격차 해소, 성 다양성, 청년 참여율 증진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여에 대한 목표를 높게 설정해야 한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모두를 같은 방향으로 이끄는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쌓아야 한다”

A4. “첫째,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변화의 가속화, 둘째, 미래의 청년들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중요시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주는 지원금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Q3.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Investec



A3. 파니 티티, Investec CEO: “기업은 기후변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Q3.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기업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Q4. 기업들이 목표를 더 빠르게 이루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에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정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베르게스 올람인터내셔널 공동창업자 및 CEO:

Olam



A3. “현재 SDGs 현황을 볼 때 목표달성과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것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속해 있는 기업 또는 산업에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A4. 씨니 베르게스 올람인터내셔널 공동창업자 및 CEO: “첫째, 탄소세와 같은 정책적 프레임워크 설립, 둘째, 탄소발자국 의무 공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패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변화에 기업과 공급망의 적응방법, 그리고 SDG(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의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다음 2020 UNGC 온라인 리더스 서밋 특집은 ‘환경’과 ‘여성’을 주제로 연재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LG 화학



UNGC 가입: 2014. 3. 17

LG화학은 1947년 창립 이래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화학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0년 화학기업 25' 보고서에서 브랜드가치 4조원을 돌파하는 등 세계적인 화학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화학학회 ACS(American Chemical Society)가 발간하는 전문잡지 C&EN(Chemical & Engineering News)이 선정한 '2018 Global Top 50 화학 회사' 순위에서 Top 10에 선정됐습니다. LG 화학은 'We connect science to life for a better future(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과학을 인류의 삶에 연결합니다)'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축적한 지식과 기술, 솔루션이라는 과학을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의 지식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세상에 없던 혁신을 이루고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대표 화학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핵심 경쟁력으로 만들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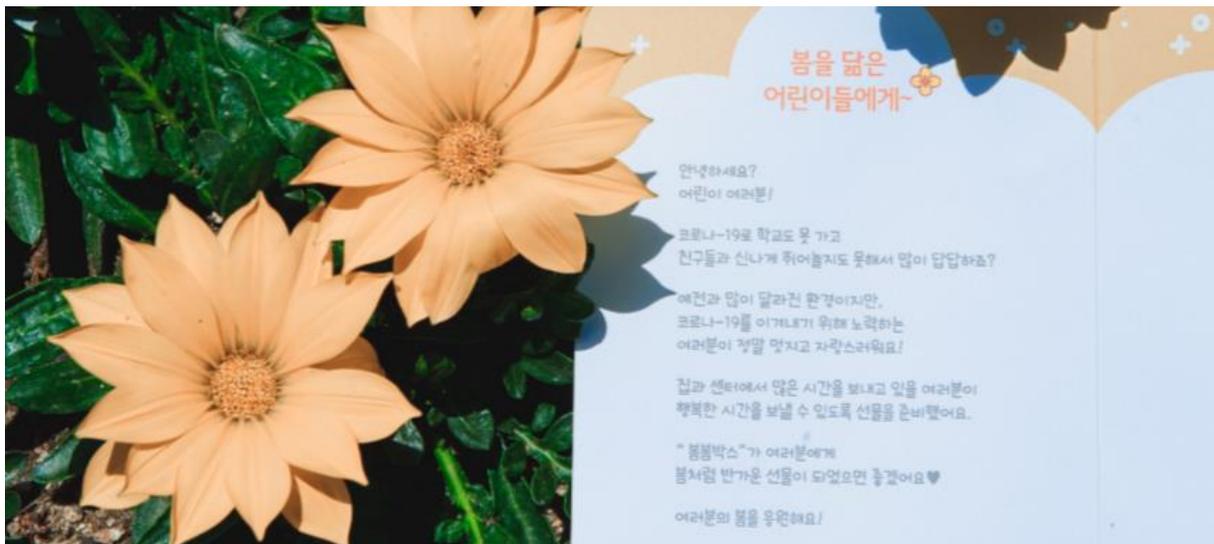
주위를 살피고 서로 돕는다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LG화학의 노력

전 세계적으로 위기인 코로나19로 많은 사람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LG화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가장 현실이며 실천적인 방법을 찾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 협력회사,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어려운 일일수록 가까이 서서 함께 이겨내려는 LG화학의 지원 활동을 말씀드립니다.

LG화학 봄봄박스

LG화학은 11일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봄을 선물한다'는 의미의 '봄봄박스'를 제작하여,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2천명 대상 총 3억원 규모의 '봄봄박스'를 지원했습니다. LG화학은 지난달 대구/경북 지역과 사업장 소재 지역의 아동센터로부터 청소년 2천명을 추천받은 후, 수혜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전설문을 통해 '학습지원', '보건위생', '정서지원' 등 총 3개의 키트로 구성된 '봄봄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학습지원’ 키트에는 무선 헤드셋과 10여개 종류의 문구류 등을 담았고, ‘보건위생’ 키트에는 청소년들의 생활방역과 면역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손 소독 티슈, 핸드워시, 건강기능식품 등을 담았습니다. 또한 ‘정서지원’ 키트에는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과 운동용품 등을 담았습니다 이와 함께 LG화학은 ‘키다리 아저씨’가 청소년들의 봄을 응원하기 위해 쓴 편지도 ‘봄봄박스’에 담아 진심 어린 격려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협력회사 금융지원

LG화학은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생 펀드’ 및 ‘혁신성장 펀드’ 등 총 1,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빠르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생 펀드’는 협력회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629억 원 규모의 저리 대출 펀드이며, ‘혁신성장 펀드’는 협력회사의 핵심 R&D 과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432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 펀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를 위해 대출 심사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상

반기 중에 빠른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산업은행과 함께 조성한 1,500억원 규모의 '투자지원 펀드'를 통해 협력회사의 설비 투자 등 운영자금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

LG화학은 재정 안정성이 취약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지원하기 위해 LG전자와 함께 친환경 사회적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LG소셜캠퍼스'에 선정돼 활동 중인 사회적 기업에 총 2억원 규모 구호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년간 LG소셜캠퍼스 사업을 통해 발굴되고 성장한 LG 소셜펠로우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지원을 실시했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과 구성원이 '호혜와 연대'를 통해 함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릴레이 헌혈 캠페인

LG화학 노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헌혈인구 감소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조 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릴레이 헌혈 캠페인은 지난 3월 19일 여수공장에서 시작해 4월 말까지 오창, 청주, 대산, 익산 등 국내 12개 사업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전 사업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해 국가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습니다.



자발적 모금활동 '만원의 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에 이어 사업장 임직원들의 또 다른 자발적 지원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LG 화학 노사가 공동으로 '만원의 나눔'이란 모금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금 활동으로 조성된 1억 원을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의 소상공인과 의료진에게 기부했습니다.

글로벌 지원

한편, LG화학은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중국, 폴란드, 인도네시아, 인도 등 해외 사업장 소재국 정부에 마스크, 위생장갑, 방호복과 같은 구호물품을 약 10억 규모로 지원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멈추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노력하는 LG화학은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나갈 예정입니다.



1. [SDGs 솔루션] 음식물쓰레기를 열과 에너지로 전환하는 순환 프로세싱



올레코(Olleco)는 식품 산업에서 나오는 유기 폐기물을 수집하여, 바이오가스, 퇴비, 바이오디젤을 생산해 기업에 재공급합니다.

올레코는 호텔, 식당, 주점과 구내식당 등 50,000여개의 자사 고객이 배출하는 식품 폐기물, 폐지방 그리고 폐식용유를 수거합니다. 올레코의 폐기물 수집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고객들은 폐식용유를 하수구에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일단 수거되면, 음식물 쓰레기는 혐기성 소화 플랜트로 보내진 후 재생가능한 열과 전력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친환경 에너지는 기름 폐지방과 폐식용유로부터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전환 공정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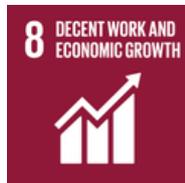


폐기물의 완전한 회수를 위해 올레코는 자사가 생산한 바이오 연료를 고객이 유통망 운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며, 새 식용유를 배달하기도 합니다. 이 공정의 유일한 산출물은 화학성분이 없는 비료로 사용되는 풍부한 퇴비뿐입니다.

왜 올레코에 주목해야 할까요?

영국의 자선단체 '폐기물 및 자원 액션 프로그램(Waste and Resources Action Programme)'에 의하면, 영국 식품 업체들은 매년 약 백만 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며, 이로 인해 연간 약 3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올레코는 매년 1,600만 리터의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해 10만 톤의 유기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에너지를 활용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올레코는 폐기물을 바이오 연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55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이로써 녹색경제의 고용 잠재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업, 혁신, 사회기반시설

올레코는 영국 내 매립지에 폐기되었을 식품 산업 유기폐기물을 신재생열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바이오 연료 생산에 활용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폐기물 관리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며, 올레코는 음식물쓰레기가 깨끗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략의 일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올레코가 생산하는 식용유와 비료는 기존 제품에 대한 더 지속가능한 소비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후행동

올레코가 유기폐기물로부터 생산하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디젤은 시중 디젤과 비교하였을 때 온실가스를 총 95% 감축합니다.

[자세히 보기](#)

2. [SDG 미디어 존]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하기

- 스캇 매더(Scott Mather) PIMCO 미국 핵심전략 최고운영책임자

P I M C O

1971년에 설립된 글로벌 최대 채권운용회사 PIMCO는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위해 인간개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집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PIMCO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특히 PIMCO의 최고경영자인 모하메드 엘에리언(Mohamed El-Erian)이 급격한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전형을 뜻하는 뉴 노멀 (New Normal)이라는 표현을 처음 언급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측 스캇 매더(Scott Mather) PIMCO 미국 핵심전략 최고운영책임자>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20년 1월 21일부터 3일간 개최된 다보스 포럼에서 유엔글로벌콤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SDG 미디어 존을 운영했습니다. 약 3,000여 명의 전 세계 비즈니스 리더들, 정부 및 유엔 지도자, 혁신가 및 사회활동가들이 참석한 이번 포럼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달성 및 사회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브랜드, 즉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매회 뉴스레터에 SDG 미디어 존에서 다뤄진 주제별 토크의 내용을 정리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크에는 스캇 매더(Scott Mather) PIMCO 미국 핵심전략 최고운영책임자가 참여했습니다. 매더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이루기 위해 투자자와 기업이 무엇을 해야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Q.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매년 5조 달러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가?

A. 5조 달러가 많은 돈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와 투자 가능한 분야의 규모를 보았을 때

우리는 엄청난 양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 자본 확보를 위해 민간부문이 투자할 수 있고 상업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를 발굴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은 집중적으로 지속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점차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일례로 녹색채권이 있다. 약 1조 달러의 자본을 확보한 프로젝트이자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녹색채권은 금융 시장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민간부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투자관리사는 민간부문이 공공부문과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한다.

Q.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인가 순수히 자선적인 사업인가?

A.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바라볼 때 수익성이 있거나 자선적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투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백 년 동안 가졌던 사업기회 중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지속가능한 투자사업은 자선과 이윤 창출까지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본다.

Q. 기업, 특히 금융기업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내재화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A.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많다. 국제적인 대기업 대부분은 이미 비즈니스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기회를 잡으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업이 지속가능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 소통 및 집중공약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기업 내 최고재무관리자(CFO) 및 재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과 기회를 잘 분석할 수 있는 전문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이들이 투자기회를 제대로 파악한다면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흐름에 맞춰 어떻게 좋은 사업을 추진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 기업 재무에 초점을 맞추어 SDG채권과 같은 새로운 금융기회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Q. 지속가능 아젠다를 추진하기 위해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소집한 최고재무관리자(CFO) 태스크포스에서 PIMCO가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다. 현재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가?

A. 우리는 향후 2년 안에 수백 명의 최고재무관리자가 포함된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기업 재무 부서가 지속가능성 목표와 기회에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북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기업끼리 지속가능성에 대해 소통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일이 드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대화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Q. 투자자들 스스로 투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속가능성이 그들이 최대 관심사인가?

A.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속가능성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해마다 지속가능한 사업의 성장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관 및 소매 투자자들이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투자하려는 동향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반짝하고 사라질 유행이 아닌 몇 년 동안 지속될 메가 트렌드이다.

마지막으로 매더는 2030 의제를 달성하기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투자자들이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현재 일어나는 금융 시장의 변화가 지속된다면 단기간 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Gender Equality Korea)

1. WEPs 성 격차 분석 툴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전세계 170 여개 이상의 기업들의 의견을 받아 개발한 WEPs 성 격차 분석 툴은 기업의 성평등, 여성역량강화에 현황에 대한 종합 분석을 제공하는 온라인 툴입니다.

직장, 시장 및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성평등 정책 및 프로그램들을 진단하여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방향성 설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본 툴을 통해 기업은 여성역량강화에 대한 강점과 약점, 기회를 파악할 수 있으며, 자사의 성평등 정책과 프로그램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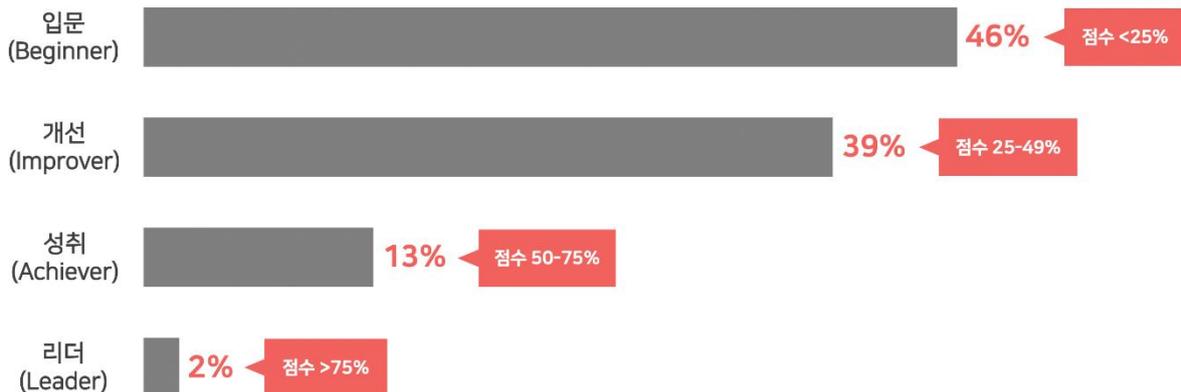
체크리스트 구성 (총 18 개 문항)

- 고위 경영진의 지지와 선언
- 여성 차별금지정책 및 고용평등제도
- 동일노동 동일임금
- 유급 출산휴가 양육지원 제도
- 폭력, 괴롭힘, 성 착취
- 산업 안전 보건
- 공급망 내 여성 인권 신장 (포용적 공급망)
- 지역사회 내 여성인권 보호 및 증진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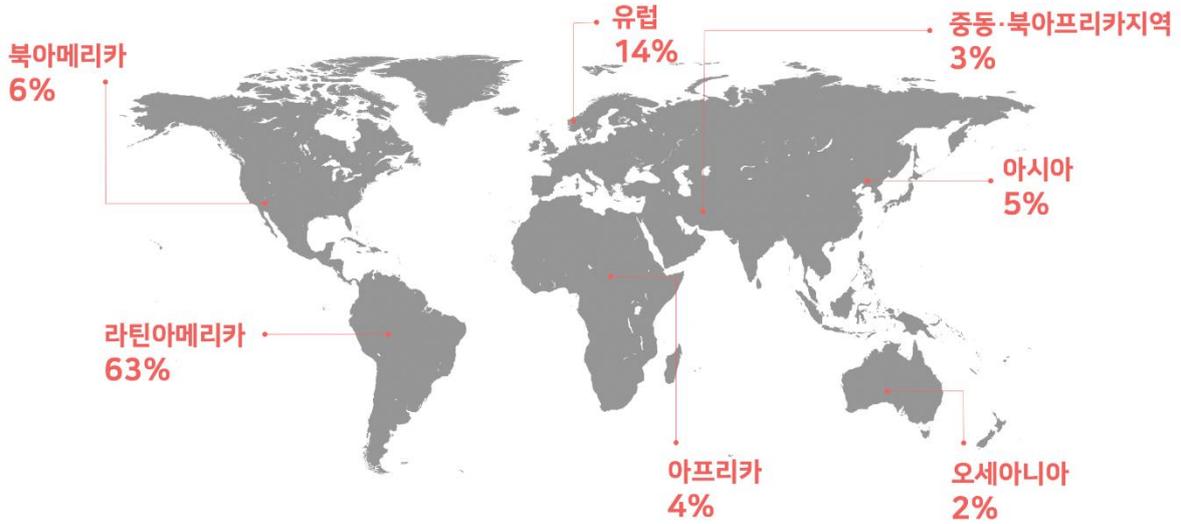
- 기업의 성평등 정책 및 전략 평가 제공
- 성별 격차, 기회 파악을 통한 사내 성평등 정책 접근 향상
- 성평등 관련 목표 설정 및 진전사항 파악
- 성평등 행동 촉진에 글로벌 성평등 자료 및 툴 활용
- 여성에 대한 투자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

WEPs Tool 점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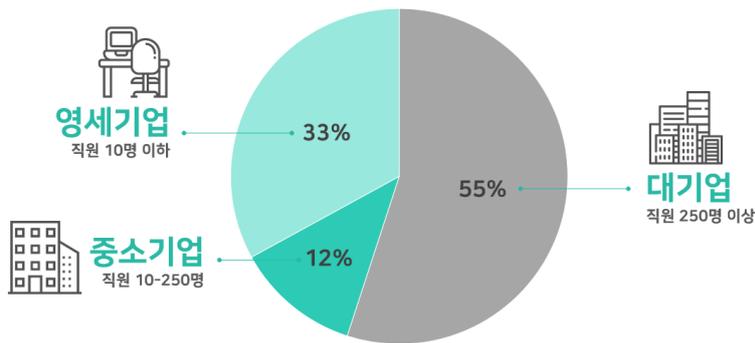


2020년 7월 기준 전 세계 126개국의 2607개 기업이 WEPs 툴에 참여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2019년까지 WEPs 툴을 사용한 2,000 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점수 분포도를 산출했습니다. 2019년 전체 평균 점수는 28%로, 2018년 26%보다 소폭 늘어났습니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각 관리 단계(의지 표명, 실행, 측정, 투명성)에 걸쳐 완벽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활용 현황



기업규모별 활용 현황



산업별 활용 현황



지역별로는 라틴아메리카 내 기업들이 툴을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규모별 활용 현황의 경우 대기업, 영세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금융서비스, 에너지 및 자원개발, 식음료 및 농업 등 다양한 산업군 내 기업들이 WEPs 툴에 참여했습니다.

WEPs 툴은 <https://weps-gapanalysis.org/>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한글로도 제공됩니다. WEPs 툴 이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발취, 번역, 제작하였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GEK 에서 보기

WEPs Tool 이용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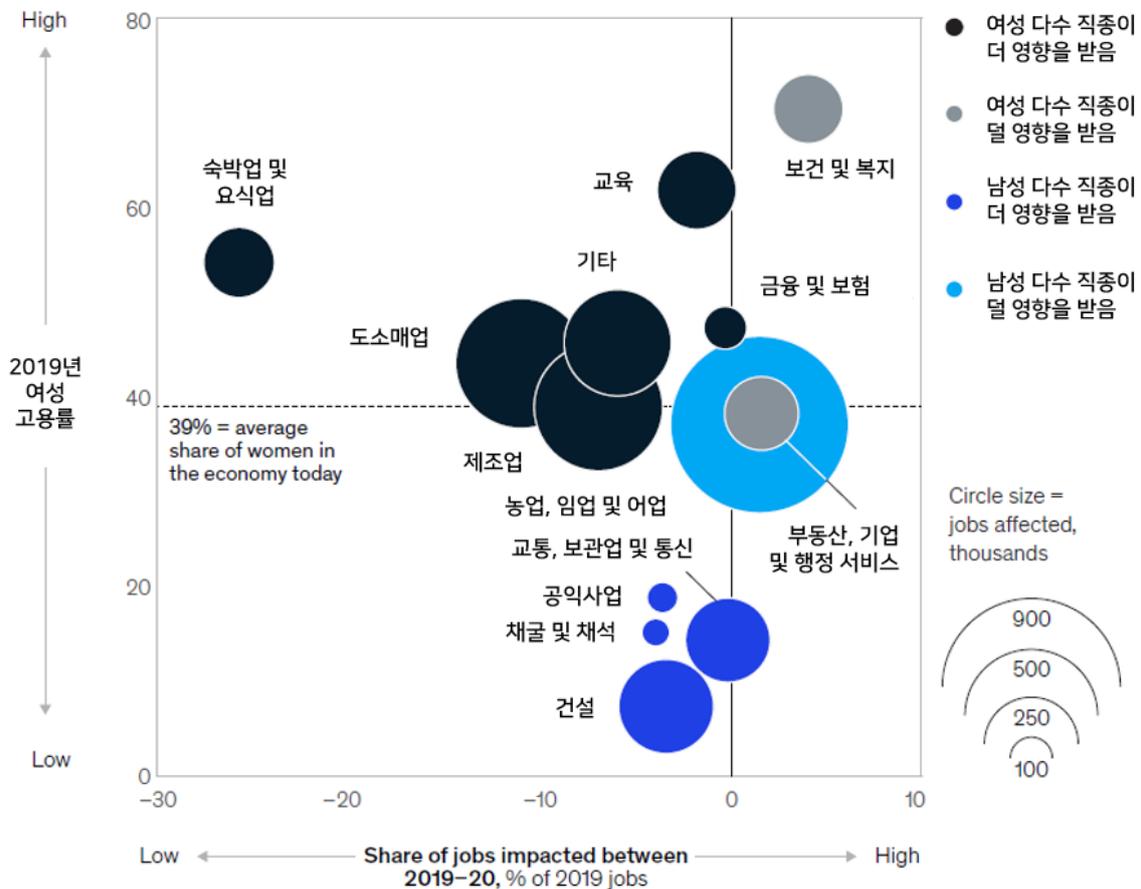
2. [글로벌 동향] McKinsey Global Institute: COVID-19 와 성평등

컨설팅 기업 McKinsey & Company의 산하연구기관인 McKinsey Global Institute(MGI)는 2015년부터 '평등의 힘(Power of Parity)' 프로젝트를 통해 △직장 내 성평등 △정치적 발언권 △경제적 기회 활성화 등 15개의 성평등 지표를 조사 및 분석하여 성평등 점수(Gender Parity Score, GPS)를 산출해왔습니다. MGI는 산출된 GPS를 기반으로 사회 내 전반적인 성평등이 직장 내 성평등과 큰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COVID-19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힌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성은 COVID-19로 인한 실직 위험이 남성보다 1.8배 높으며, 전 세계 고용의 39%를 차지하지만 전체 실직 수에서는 54%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COVID-19의 확산으로 인해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부담이 여성에게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여성은 기존의 성 불평등으로 인해 COVID-19의 경제적 영향에 더욱 취약합니다

COVID-19로 인한 남성 실직률은 3.1%인 반면, 여성 실직률은 5.7% 입니다. 또한, 여성이 다수인 직종은 남성이 다수인 직종보다 19% 더 실직률이 높습니다. 이는 COVID-19로 인해 쇠퇴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여성의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별 세계 고용 영향 (2020)



뿐만 아니라, 무급 돌봄 및 가사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여성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여성은 이미 양육, 노인 돌봄, 요리와 청소 등 전 세계 무급 노동의 평균 75%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인도 여성들이 무급 돌봄 및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COVID-19 이후 30% 증가했으며, 미국의 경우 기존보다 1.5~2시간 늘어났습니다. 또한 점점 늘어나는 업무 자동화의 추세에 따라, 전 세계 40만 명에서 160만 명의 여성이 2030년까지 직업을 변경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COVID-19 이전에도 성평등에 대한 발전은 더뎠습니다

COVID-19는 성평등에 대한 발전이 더디고, 고르지 않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직장 내 평등에 대한 진전은 저조했습니다. 2014년의 GPS 점수는 0.60이었는데, 2020년의 경우 GPS 점수가 0.01포인트 증가한 0.61에 그쳤습니다(GPS 점수가 1인 경우 완전한 성평등을 의미함). 모성 사망률이나 정치적 대표성 등의 요소에 있어서는 발전을 보여왔으나, 여성의 노동 참여율의 경우 여전히 남성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성평등에 대한 발전의 부족은 결국 경제적 비용을 수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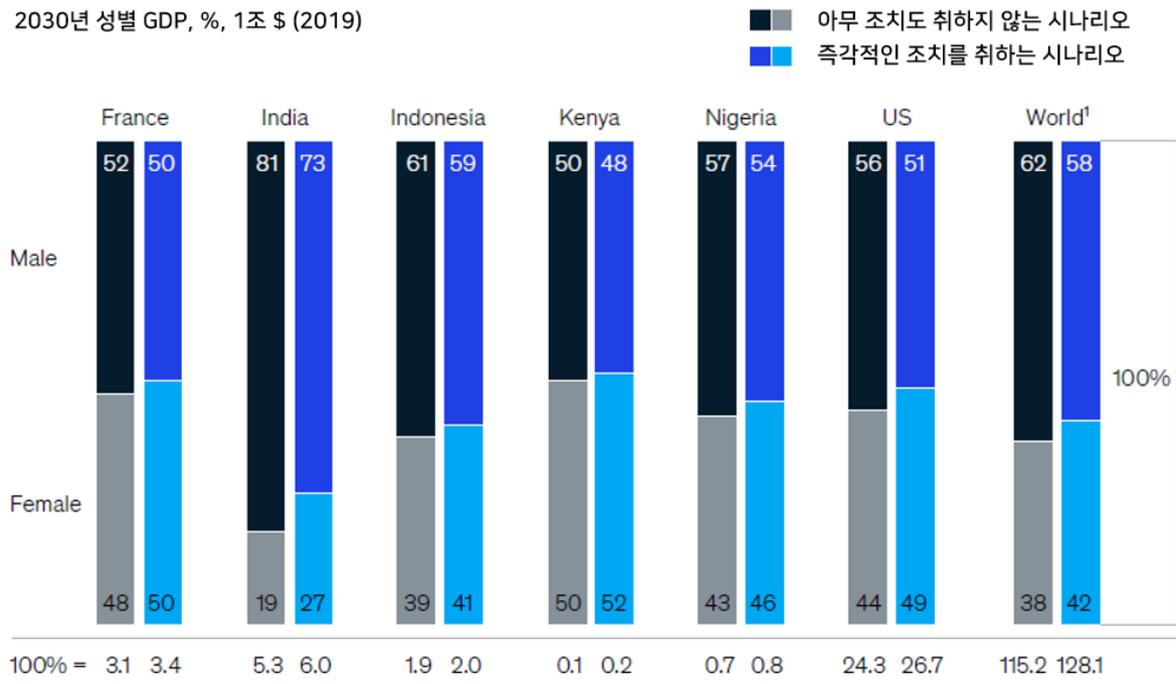
2030년 GDP의 세 가지 시나리오가 성평등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MGI는 COVID-19 팬데믹 이후의 여성과 경제에 대한 3가지 잠재 시나리오를 구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평등 퇴행적인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여성에게 불평등하게 가해진 COVID-19 팬데믹의 타격이 적절하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두 번째는 성평등을 개선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는 COVID-19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가 가라앉을 때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리는 '실행 대기 시나리오'입니다. 본 시나리오는 성평등 개선 조치가 2024년에 시작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즉각적인 조치를 통한 가장 높은 수준의 성평등 개선이 실현될 경우 그 해 GDP가 약 13조 달러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남성대비 여성 노동 참여율이 2020년 0.62에서 2030년 0.71까지 확대될 것이며,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한 2억 3,0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VID-19와 여성의 경제적 타격에 대한 회복이 더딘 경우, 더 많은 여성들이 영구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를 잃을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무급 가사 및 돌봄 노동과 가정 폭력의 증가 등 성 불평등에 대한 여러 요소에 계속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울 능력을 방해해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한 각각의 국가들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시나리오'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시나리오' 간의 간극은 상당합니다.

2030년 성별 GDP, %, 1조 \$ (2019)



확실한 점은, 성평등을 실현을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는다면 여성의 경제적 삶과 사회적 삶, 그리고 경제 성장에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COVID-19로부터의 회복 과정에서 여성과 소녀에 투자하는 것은 성평등을 개선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의미합니다.

MGI의 연구는 성평등은 곧 경제와 사회 전체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COVID-19 팬데믹은 이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가 이제 중요한 선택을 해야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기업은 즉각적인 행동을 통해 여성의 노동 참여율을 높이고, 더 큰 사회적 역할을 여성에게 부여해 경제적 및 사회적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평등은 강력합니다. 이제는 정책 입안자들과 비즈니스 리더들이 나서서 평등을 현실로 만들 때입니다.

여성의 무급 돌봄노동 문제 대응방안

- 부모가 모두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기업과 국가의 보육 서비스 제공 및 세금 정책 마련
- COVID-19와 그 이후 가중된 양육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친화적 제도 (유연근무제 및 파트타임 근무제 등)
- 인사평가 제도의 재고를 통한 기업 내 구조적 변화
-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전문성있는 보육산업
- 육아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 변화 등

여성의 디지털 및 경제적 포용을 위한 행동 방안

- 디지털 인프라 확산 (특히 개발도상국 내 확산)
- 여성 기업인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어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여성 소유 기업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
- 사회 내 만연한 성역할 및 고정관념 변화 등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발췌, 번역, 제작하였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GEK에서 보기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 (Business Integrity Society)

1. [반부패 투자동향 ②] 스웨덴 국가연금펀드



스웨덴은 연금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쟁을 통해 수익률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1 년 연금 자산을 4 개의 펀드로 분산했다. AP1~4 는 각자 독립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며 자산 구성에서도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2007 년에 함께 만든 윤리위원회(Council on Ethics)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각 펀드를 대표하는 4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윤리위원회는 투자 기업에 대한 ESG 실사와 문제 개선 평가를 바탕으로 각 펀드에 의결권 행사 및 투자 철회에 대한 권고를 한다. 기업 실사는 기후, 환경, 인권, 기업윤리 4 개의 중점 영역(focus area)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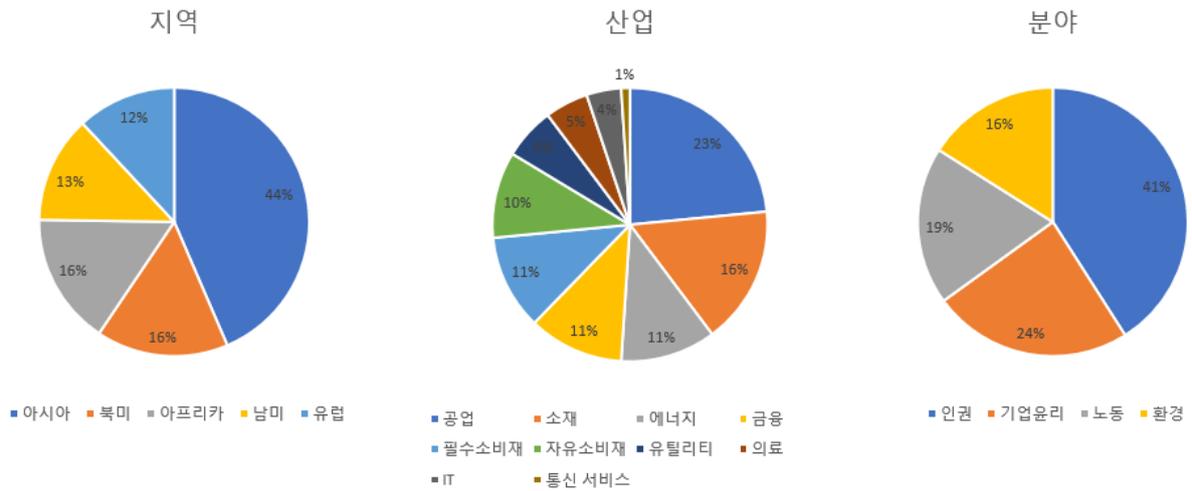
AP1~4 윤리위원회의 기업 반부패 활동 평가 지표	
모든 임직원들을 위한 행동규범	공급업체들을 위한 행동규범
중개인/대리인들을 위한 행동규범	부패 무관용 원칙 선언
직원들의 익명신고 가능 여부	신고에 대한 보복 가능성
선물, 접대, 출장에 대한 내부규정	반부패 교육
임원들을 위한 반부패 지원	반부패 노력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정치 후원금 보고	업무 촉진용 금품 지급 금지

AP1~4 의 사회책임투자는 2019 년 1 월 1 일 스웨덴 ‘국가연금보험기금법(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s Act)’이 개정되면서 의무화되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AP1~4 는 장기적 안정성, 수익성과 더불어 지속가능하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모범적인” 자산 운용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AP1~4 는 공동으로 ‘자산 운용을 위한 핵심 가치’, ‘목표 달성에 대한 보고 가이드라인’과 ‘투자 배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뚜렷한 투자 원칙을 세우고 철저히 따르고 있다.

특히, 반부패는 윤리위원회의 중점 영역 중 하나로 민주주의, 적법성, 객관성, 투명성, 존중, 효율성과 우수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AP1~4 의 ‘핵심 가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부패는 투자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 부패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주주총회 안건 상정 및 지지, 기타 주주 및 단체들과 협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단체 및 프로젝트 지원, 기업 이사회와 이해관계자들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를 통해 문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 펀드에 투자 철회를 권고하여 투자를 제한하게 된다.

2019년 대화(Dialogue) 진행 결과 (427개 기업, 547건)



Royal Dutch Shell과 Eni Spa가 2011년 나이지리아 해양석유 계약 입찰을 위해 사용한 11억 달러 중 절반이 정치인과 중개자들에게 뇌물로 주어졌다는 이탈리아 검찰의 2018년 조사에 따라, AP1~4는 윤리위원회를 통해 두 기업의 반부패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윤리위원회는 중국철도총공사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투명한 보고와 반부패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철도총공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요구사항을 이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미흡하다는 지적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윤리위원회 대화(Dialogue) 진행 절차



출처: 스웨덴 국가연금펀드, 윤리위원회

© 본 자료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에서 제작하였으며, 무단 활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BIS 에서 보기

2. [코로나와 반부패 ③] 바젤연구소 코로나 19 사태 이후의 기업 청렴성과 반부패



Gemma Aiolfi

컴플라이언스 대표,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

많은 정부들이 이미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락다운(lock down) 해제 이후의 상황을 고민하고 있으며 많은 기업이 영업을 재개하고 세계 무역을 다시 강화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전염병은 기업의 반부패와 청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 현실에 기업은 어떠한 지원을 필요로 할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

미래를 예측할 때 정책 입안자들은 스페인 독감, 대공황, 2008 년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침체 등 과거에 유사한 경제 위기 사례를 되돌아보게 된다. 2008 년 금융위기를 되돌아보면 글로벌 경제 위기를 계기로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도입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규정들을 코로나 19 사태 이후에도 새롭게 도입해야 할까? 지난 10 년간 기업들이 경험한 컴플라이언스 관련 변화의 폭은 막대함으로 역사적인 사례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변화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바탕을 둔 전세계적인 반부패 및 기업 뇌물 관련 법 제정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인 증가의 결과만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의 포괄적인 영향이 있었다.

- 고객, 공급업체 및 기타 제 3 자와의 상호작용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걸친 디지털 기술 구축;
-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광범위한 질문;
- 기업 지배구조;
- 행동과학;

이러한 변화들은 지난 10 년동안 반부패 준수규정, 기업 윤리와 청렴성에 영향을 끼친 변화들 중 일부일 뿐이다.

디폴트(Default) 시나리오

이러한 발전사항 중 일부는 향후 몇 년 이내에 폐지, 변경 또는 확장될 수 있으며 기업 윤리와 청렴성

기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게 나쁜 소식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새로운 기회, 잠재적 위험, 그리고 백트래킹(backtracking)과 같은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한 예측이다.

팬데믹 속에서도 법은 지켜야 한다

한 기관이 코로나 19 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뇌물을 지급했거나, 부정을 저지르는 등의 부적절한 관행을 통해 재무상태를 강화하려고 한 것이 밝혀질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 19 는 이러한 행위의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다.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기업의 부패와 같은 범죄를 밝혀 내기 위한 법의 집행은 계속된다. 따라서, 기업은 절대로 반부패 노력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 기업들의 자발적인 공동 노력(Collective Action)이 필요한 시기이다.

검찰당국의 업무 수행 의지에도 불구하고, 몇몇 정부는 재정삭감 등을 통해 법 집행 기관의 수사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뇌물방지법 시행에 대한 OECD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의도적인 효율적 법 집행의 방해 및 반부패에 대한 정치적 의지 부족으로 반부패법을 지지하지 않는 행위는 기존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는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또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은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반부패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원칙을 따른 생존자들

기업 경영에 있어 기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리더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제 환경을 개척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업들은 여러 안건에 대해 직원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이를 존중받는 문화가 잘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업의 혁신으로 이어진다.

즉, 변화에 대한 적응이 빠르고 민첩하게 반응하며, 반부패 원칙과 같은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기업은 타 기업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진다. 그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했을 수 있으며, 기존의 기업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문제 해결 방식을 이미 습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고한 원칙만으로 기업의 장기적인 운영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몇몇 산업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취약하다. 또한 몇몇 기업은 시행중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의 수준과 무관하게 재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해 세운 유연하고 연속성 있는 계획은 향후 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타 경쟁사보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된다.

반부패 원칙을 고려한 탄탄한 반부패 프로그램을 갖춘 기업은 공급망과 비즈니스 파트너에게도 잠재적인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들은 선례가 되며 다른 기업에 영감(Inspiration)을 준다. 또한, 공동 노력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다른 기업들도 높은 반부패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 간다.

늘어나는 공기업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 및 보호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과 규제금융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다. 공기업의 높은 부패 위험 수준은 OECD 의 국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기업과의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기업은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와 거버넌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뇌물수수 위험을 적절히 파악하고 문제를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다. 특히나 코로나 19 위기로 생겨난 새로운 공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

CEO 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기존에 사기업으로 운영되었던 공기업이 정부의 관리 하에 기존과 동일한 윤리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지 마십시오.

중소기업은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락다운과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중소기업은 시장에서 뒤쳐져 살아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의 생존을 위해 노력중인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반부패 준수를 기업의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선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비즈니스 생존을 위해 올바른 행동을 저버리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현명한 중소기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그들의 반부패 준수 및 관행으로 인해 더 많은 투자자를 끌어오고,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형성하며 새로운 시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의 '기업 청렴성 이니셔티브'(Business Integrity Initiative) 같은 기관은 중소기업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공급망의 수직적 통합 증가

코로나 19 로 인한 락다운은 공급망의 문제점과 기업이 필수적인 부품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한가지 자원에 의존적인 행위의 문제점을 보여줬다. 몇몇 공급자들은 생산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부와 시민 그리고 몇몇 기업은 이러한 공급자에게 생산 아웃소싱을 한 결과로 인한 연쇄효과로 타격을 입었다. 이는 물품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로 이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뇌물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운송 수단의 감소로 인한 운송비의 급격한 증가는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에게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미 코로나 19 발생 전부터 대기업들은 이러한 문제의 딜레마와 애로사항을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당 대기업들은 향후 또다시 발생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등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다. 반부패 및 안정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는 아래를 의미한다:

- 최근 반부패 관련 법과 컴플라이언스 기준은 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에 부적절한 이윤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한 제 3 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 기업 내부의 전 생산 과정에서 일관성 있고 포괄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보유하는 것은 기업내 준법감시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준을 구현하는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어려워 보인다. 공급망에서의 다양성, 다른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 진행 등의 요소들로 인해 소유권을 간소화하는 것 자체는 뇌물 수수 리스크에 관련된 모든 요소를 제거할 수 없다.
- 수직적 통합구조를 가진 기업의 경우,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는 양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패 스캔들이 발생할 경우, 평판 리스크가 큰 기업은 적절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업은 이러한 스캔들을 덮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 수직적 구조를 가진 기업의 막대한 경제력은 부패 리스크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용 부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개발 및 발전과정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에 특수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에는 세금 감면과 같은 경제적 이윤 혹은 특정 도시와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 등이 포함된다. 다국적 기업은 이미 위와 같은 조건을 토대로 몇몇 국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사례는 다국적 기업이 활동하는 국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이 항상 완벽한 윤리 기준에 의거해 운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굿 거버넌스와 강력한 뇌물 방지법 및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기준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수직적 통합에 대한 독과점 금지 문제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수평적 리스크에 비해 주된 관리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은 수직적 통합이 보다 더 보편화 될수록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 대우?

이번 코로나 19 사태의 대응으로 본 공공 보건으로 서비스와 공급망, 그리고 필수품 조달에 있어서의 취약성을 교훈 삼아 주요 전략산업에 대한 정치적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 전략산업과 정부가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투명성, 뇌물 수수와 경쟁에 있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경험은 보여준다. 전략산업에서 로비스트를 사용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기업 실사, 체계적인 절차 및 자문은 매우 중요하다.

거센 폭풍일수록 함께 해야 한다

새로 지정된 전략분야에서 공기업이 주도하는 수직적 통합은 반부패 준수의 흐름에 있어 그야말로 폭풍과 같다. 하지만 거센 폭풍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가 물 아래로 가라앉은 상황 속에서도 반부패 원칙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기업들의 공동 노력은 이러한 기회 중 하나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규정 준수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하다. 민관 협력관계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내에서도 반부패 공동노력은 비용 효율 및 실용적 방안으로 공동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히 최선의 해결책이 도출될 것이다. 이러한 해결책은 새로운 업무 방식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리스크를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 혹은 약화된 공급망을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사례와 조언을 위해,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B20 공동 노력 허브'(Collective Action Hub)를 개최하고 반부패를 위한 솔루션을 무료로 제공한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코로나 19 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이들의 삶과 생명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영향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이 상황을 기회 삼아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에 발맞춰 앞으로의 기업 방향성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다. 기업의 미래를 위해 탄탄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확립하는 것은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는 20 여년간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규모나 분야에 상관없이 전 세계 다양한 기업 및 단체와 협력해왔다. 치열한 경쟁과 위기 속에서 윤리경영을 유지하고, 고객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코로나 19 여파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 역시 기업의 청렴성과 반부패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불확실성이 유일한 확실성인 가운데 어떠한 미래가 맞게 되더라도, 실용적이고 탄탄한 접근 방식을 갖춘 우수한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 대한 필요성은 늘 존재할 것이다.

★ 이 글은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Basel Institute on Governance) 컴플라이언스 대표 Gemma Aiolfi 의 기고문을 번역하였습니다.

BIS 에서 보기

UNGC 회원 뉴스

1. 아모레퍼시픽,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 선언



- 아모레퍼시픽,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지지를 공식 선언함
- WEPs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5번 성평등 달성의 일환으로 유엔글로벌콤팩트와 유엔여성기구가 2010년 공동 발족한 이니셔티브임
- 성평등 촉진을 위한 리더십, 동등한 기회, 포용 및 차별 철폐, 보건, 안전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교육과 훈련, 사업 개발, 공급망 및 마케팅 활동, 지역사회 리더십 및 참여, 투명성, 측정 및 공시 등 7개 원칙을 기반으로 여성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기업과 기관들에게 지침과 이행방안을 제공함
- 아모레퍼시픽은 WEPs 지지에 더불어 올해 4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 웹사이트 지원함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우리 기업 및 기관들이 국내외 기준에 맞는 성평등 정책을 수립하고 여성대표성 향상과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개발된 온라인 플랫폼으로 기업과 여성 이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 젠더 이퀄리티 코리아는 △기업 여성역량 자가진단 툴 △UNGC 여성 이니셔티브(WEPs, TGE) △국내외 동향 △투자동향 △글로벌 가이드라인 △기업 사례 등을 제공해 국내외 주요 기업과 여성 이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파악이 가능함

파이낸셜뉴스

2. SKT-수자원공사 “IoT 스마트 물관리로 한국판 뉴딜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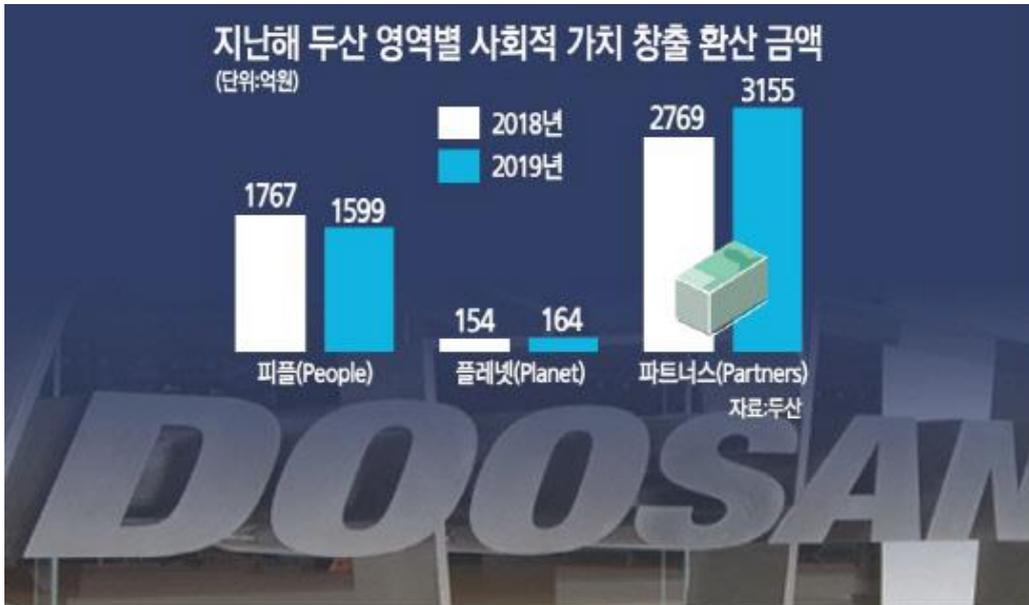
- SK텔레콤이 한국 수자원공사와 스마트 상수도 운영관리 사업에 협력하고 수도 데이터 기반의 물 복지 향상에 나서기로 함
- 양사는 사물인터넷(IoT) 기반 상수도 관리기술 표준 제정을 위한 협력을 시작으로 수자원 관리시스템 고도화와 사회적 약자 돌봄 실증 서비스를 추진할 예정
- 하반기에는 전국 단위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 지역별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그린 뉴딜 정책에 기여할 방침
- 오봉록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본부장은 “물관리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스마트 상수도 기술을 선도하고 사회안전망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복지 서비스를 꾸준히 개발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말함
- 신용식 SK텔레콤 메시브(Massive) IoT 사업본부장은 “물 관리체계를 IoT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해 녹색 전환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물 관리 글로벌 스탠더드를 주도해 세계 물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함

3. SH공사,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 SH인권센터 개소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인권침해구제 전문기구인 SH인권센터를 29일 개소하여 공사 내 인권 침해 사건을 독립적·전문적으로 구제하고 인권존중 확산과 임직원의 인권감수성 증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임
- SH공사는 그간 인권존중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인권경영이행지침을 만들고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인권존중의 가치가 경영 전반에 내재화 되도록 힘써 옴
- SH인권센터는 내부 이해관계에 간섭을 받지 않아 사건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가 가능하며 의사결정기구인 '인권침해구제위원회'와 함께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의 기능을 갖춘 '상담신고센터'를 두어 신고접수 및 조사, 결정문 통지까지 하나의 기구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함
-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 인권센터 개소를 계기로 공사 구성원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은 물론 차별과 배제가 없는 사회조성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힘
- 김동아 SH인권센터장은 “성장이 우선시되었던 과거와 달리 구성원과 관계인들을 인격적으로 배려하고 보호해야 조직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며 기업이 인권 내재화 필요성을 제기함

4. 두산, 4600억원 사회적 가치 창출 어려워도 동반성장 약속 지켰다



- 두산이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시작한 이후 2년간 1조원 규모에 이르는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남
- 두산 관계자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 사회, 환경적 영향에 대한 가치 변화를 이해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으며, 가치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의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히 주주, 고객, 협력사, 지역사회 및 정부기관 등의 영향을 측정하는 ‘파트너스’ 영역에서 두산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전년보다 14% 증가한 3155억원으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음
-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은 경영 이사회와 별도로 기업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CSR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CSR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기준을 수립해 각 활동력의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음
- 두산은 “임직원들의 이해도 제고를 통해 제품과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꾸고 내재화하고자 한다”고 전함

디지털타임스

CSR 뉴스

1. '여성위기' 코로나 19... 우리 회사는 잘 대응하고 있을까



-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취업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으며, ILO(국제노동기구)는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로나19로 여성 일자리가 남성보다 큰 타격을 받아 대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함
-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최근 기업들이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답하며 ‘성평등한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세계 600여개 기업이, 한국 14개 기업이 참여함
-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의 87%의 기업이 “여성의 의견이 기업의 코로나19 대응에 적극 영향을 미치며, 여성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으나, 아시아 기업은 64%가, 한국 기업은 79%가 같은 답변을 내놓음
- 코로나19 속 기업의 마케팅과 젠더폭력 대응 현황에서도 ‘성평등 접근’이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옴. 조사에 응한 기업의 44%(아시아 33%, 한국 50%)만이 “코로나19 속에서 자사의 광고·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성평등을 촉진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함
- 관련해 UNGC의 젠더이퀄리티코리아 웹사이트 (<http://gender-equality.or.kr>)에서 기업 내 여성 역량 강화에 관한 국내외 동향과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국내 기업 활동 사례도 상시 모집중임

여성신문

2. 기후변화 대응·저탄소사회 전환… ‘그린 뉴딜’ 밑그림



- 정부가 2025년 까지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133만대 보급하기로 했으며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저탄소·친환경 전략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을 현재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을 발표함
- ‘그린 뉴딜’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부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통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공공 임대주택 22만 5000호와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및 의료시설 2000여동, 문화시설 1000여개소 등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해 제로 에너지화에 나설 계획임
- 이와 함께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통해 기술력 확보 및 산업을 육성해 세계 시장을 주도하기로 함. 이를 위해 전기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 충전소 설치 확대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함
-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그린 뉴딜은 탄소배출 감축뿐 아니라 기후 적응, 산업부문 녹색전환을 담고 있다”며 “공공부문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재정투자로 경제 사회 구조 전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함

서울신문

3. 구글의 알파벳, ESG 채권 역대 최대규모 초저금리로 발행



-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역대 최대 규모의 ESG 채권을 발행함
- 초저금리에 발행된 본 채권에 투입된 투자 금액은 380달러에 달함
- 알파벳은 자사의 ESG채권 발행이 COVID-19 팬데믹으로부터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와 그린빌딩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
- 알파벳의 이번 회사채 발행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증가하고 있는 테크 기업들의 ESG채권 발행 추세와 맞물려 있음. 특히 올해 상반기 ESG채권 발행물량은 지난해에 비해 376% 증가함
- 또한 구글은 ESG채권 활용하여 흑인사회 지원에 투자할 것을 밝혔으며 이전에도 마찬가지로 인종 다양성 증진을 위해 노력한 바 있음
- 블랙록 기관투자자 전략팀의 헤드인 마이크 파일은 "최근 COVID-19 상황이 이 같은 지속가능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한층 더 높이고 있어 향후에는 수익률에서도 결코 다른 채권에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뉴스핌

4. 공공기관 2022년까지 일자리 2.6 만개 창출... 여성임원·고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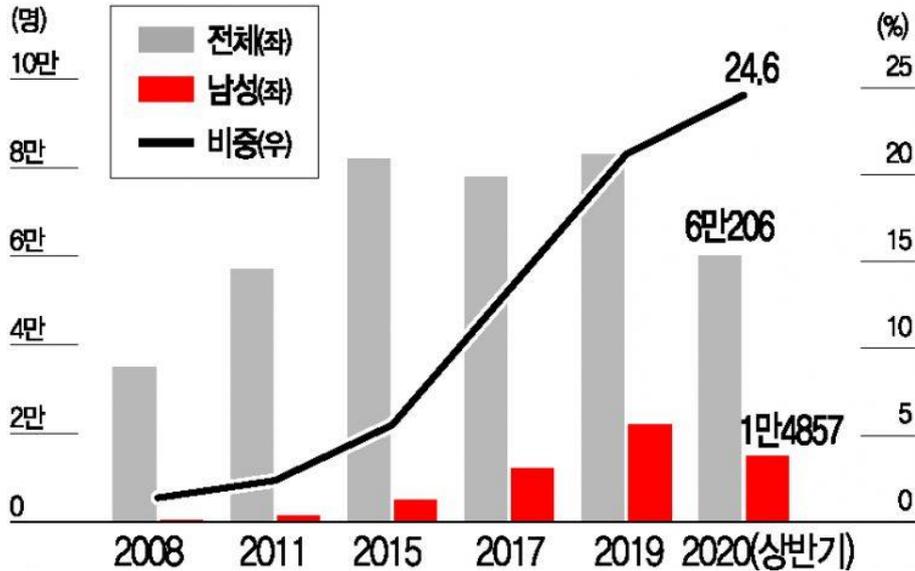


-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기관에서 6만명의 일자리 창출, 안전 및 윤리 분야 강화, 여성임원 비율 두 배 증가 및 지역인재 채용 비율 30% 달성 계획 발표함
- 공공기관 서비스 제고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만60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것이며 공공서비스, 안전·소재·부품·장비,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한국형 뉴딜 추진, 중소기업 육성 분야 중심으로 총원 예정
- 공공기관 사망 사고자수는 2017년 59명에서 2022년 25명 미만으로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전등급제 시행 및 기관별 안전경영책임보고서 수립 의무 추진 예정
- 여성임원 비율을 2017년 11.8%에서 22년 23.0% 이상으로 늘리고 장애인 고용 비율을 3.6%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 혁신 책임관·부서 중심의 자체 계획 수립·추진 및 현장의 애로·건의사항 모니터링·보완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밝힘

이데일리

5. 올 상반기 '라떼파파' 역대최대...육아휴직자 4 명중 한 명은 '아빠'

남성 육아휴직자 수 추이 (자료: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1만4857명으로 전년 동기(1만 1081명) 대비 34.1% 급증,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이는 코로나19로 돌봄 수요가 증가한 사회적 돌발 요인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정부의 제도적 보완이 맞물리면서 발생한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옴
- 남성 육아휴직자는 10여년 전인 2009년만해도 역대 502명에 불과할 정도로 주변에서 찾아보기 드물었으나 최근 들어 정부가 남녀 고용평등과 공동육아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에 나서는 등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하면서 분위기가 크게 바뀌는 추세임
- 올해 2월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됐으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급여 월 지급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지난해 1월 상향조정 됨
-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 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여전히 기회와 균형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육아휴직제 자체도 고용 안전망의 하나로 구축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함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UNGC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재가입)
- 종로문화재단

2. COP/COE 제출회원

7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8개 회원사가 COP 및 COE를 제출했습니다.

- 엠와이소셜컴퍼니
- CJ 제일제당(주)
- 신용보증기금
- 코웨이(주)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 한국지역난방공사
- (주)두산
- 한국가스공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0 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LG 화학, 두산중공업, 미래에셋대우, 롯데쇼핑, 한국남동발전, 휴맥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케이티하이텔, 한국감정원, 한화솔루션, KDB 산업은행, 대한항공, 한국마사회, 한국중부발전

<1-2 분기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대덕섬유, 테라컨설팅그룹, 씨사이드코리아,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충북대학교, (사)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산업정책연구원, 한국도자재단, (사)내부장애포럼,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천안시시설관리공단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과장/주임연구원